

2025년 제13기 중앙도서관 독서토론동아리 최종활동보고서

1 독서토론동아리 개요

동아리명	Monday		대표학생	임진호	
동아리원	학과	학번	학년	이름	연락처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 과	20212979	3	임진호	010-4343-3812
	경찰행정학과	20180456	3	김유빈	010-7165-8698
	인간시스템디자인공학 과	20211986	4	이다교	010-4547-3503
	경영학과	20220068	4	남경민	010-4598-8547
설립목적	전공 공부로 인해 항상 독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느껴져 이번 기회를 통해 독서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고자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자주 미루게 되는 습관을 극복하고, 함께 읽고 나누며 동기부여를 얻고 싶어 동아리를 설립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독서토론동아리 활동 실적

1. 1회차

일시	2025. 05. 19.(월) 20:00~22:00	장소	도서관 CIC 룸
참여자	○ 임진호 김유빈 이다교 남경민		
서명 / 지은이	○ 데미안 / 헤르만 헤세		
토론 주제	○ 내 삶속에서의 알은 무엇일까?		
활동 내용	■ 마음열기 - 인사와 함께 하루 일상을 공유하며 토론의 분위기를 자유롭게 만들 ■ 작가소개 / 책소개 (작가소개) 헤르만 헤세(1877-1962)는 독일 출신의 시인이자 소설가, 수필가로 20세기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1877년 독일 뷔르템베르크 칼브에서 선교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동		

양 사상, 신비주의, 개인주의 작 자아탐색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작품에서 이런 주제를 자주 다룬 것을 알 수 있는 작가이다
대표작으로는 데미안, 싯다르타, 유리알 유희, 황야의 이리 등이 있으며 1946년 유리알 유희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책 소개)

데미안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장편소설로 1차 세계대전 후 혼란과 불안에 빠진 청년들의 내면을 깊이 있게 그려낸 소설이다. 원제는 Demian : Die Geschichte von Emil Sinclairs Jugend 즉, 에밀 싱클레어의 젊은 시절 이야기이다.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싱클레어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사이의 갈등을 겪게 되고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부터 울리는 자아의 진실한 소리를 듣고 혼란에 빠진다. 그러는 도중 데미안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겪게된다. 여러 가지 스토리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싱클레어의 일대기인 것이다.


■ 독서토론

- 책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 임진호	타인에게 숨기려고만 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받아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 나를 더 깎아내리지 않고 이러한 모습도 나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유빈	주인공이 점차 자신을 성장시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겪어오고 현재 겪고있는 어려움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이다교	주인공을 보며 나의 삶은 지금 어떠한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보며 나는 어떻게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고찰을 하게되었습니다. 삶에 정답은 없지만 내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줘야 추진력을 얻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남경민	나의 내면에 여러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또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선택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고자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 책을 통해서 실천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 임진호	나에게 존재하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가지 못 하게 막는 "알"을 깨는 것. 즉,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 도전을 꺼려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그런 것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많은 도전과 기회를 얻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 김유빈	나 자신을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삶을 방향을 더욱 명확히하고 싶습니다.
♣ 이다교	나에 대해 더 알아가야겠고, 글로 기록하며 나와의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 나의 세상을 더 확장시켜야겠습니다.
♣ 남경민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선택이 아닌 스스로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싶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고 싶다.

	<p>■ 마무리 소감</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41 226 501 510">♣ 임진호</td><td data-bbox="501 226 1501 510"> <p>혼자 책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원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좋았다</p> <p>특히 시선에 대한 생각을 나눌 때 모두 둘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p> <p>한국 사람은 더욱 시선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알이고 이것을 이겨내면 우리는 성장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책 한 권 읽은 바보가 아닌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토론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p> </td></tr> <tr> <td data-bbox="341 510 501 678">♣ 김유빈</td><td data-bbox="501 510 1501 678"> <p>조원들과의 토론에서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 더 깊게 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같은 질문들에 대한 각 개인마다 다양한 해석들이 흥미로웠고 각기 다른 생각과 관점을 들을 수 있어 생각의 폭도 넓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p> </td></tr> <tr> <td data-bbox="341 678 501 837">♣ 이다교</td><td data-bbox="501 678 1501 837"> <p>독서토론을 초~중학교 이후로 오랜만에 해서 새로웠던 것 같고, '데미안'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니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놓치고 지나갔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되짚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며 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p> </td></tr> <tr> <td data-bbox="341 837 501 996">♣ 남경민</td><td data-bbox="501 837 1501 996"> <p>처음 '데미안'으로 책을 선정하게 되었을 때는 읽기 어려운 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1차적으로 독서 활동을 하고, 2차적으로 팀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과 해석을 들을 수 있어서 책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p> </td></tr> </table>	♣ 임진호	<p>혼자 책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원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좋았다</p> <p>특히 시선에 대한 생각을 나눌 때 모두 둘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p> <p>한국 사람은 더욱 시선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알이고 이것을 이겨내면 우리는 성장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책 한 권 읽은 바보가 아닌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토론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p>	♣ 김유빈	<p>조원들과의 토론에서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 더 깊게 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같은 질문들에 대한 각 개인마다 다양한 해석들이 흥미로웠고 각기 다른 생각과 관점을 들을 수 있어 생각의 폭도 넓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p>	♣ 이다교	<p>독서토론을 초~중학교 이후로 오랜만에 해서 새로웠던 것 같고, '데미안'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니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놓치고 지나갔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되짚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며 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p>	♣ 남경민	<p>처음 '데미안'으로 책을 선정하게 되었을 때는 읽기 어려운 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1차적으로 독서 활동을 하고, 2차적으로 팀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과 해석을 들을 수 있어서 책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p>
♣ 임진호	<p>혼자 책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원들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좋았다</p> <p>특히 시선에 대한 생각을 나눌 때 모두 둘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p> <p>한국 사람은 더욱 시선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알이고 이것을 이겨내면 우리는 성장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책 한 권 읽은 바보가 아닌 여러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토론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p>								
♣ 김유빈	<p>조원들과의 토론에서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질문들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 더 깊게 책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같은 질문들에 대한 각 개인마다 다양한 해석들이 흥미로웠고 각기 다른 생각과 관점을 들을 수 있어 생각의 폭도 넓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p>								
♣ 이다교	<p>독서토론을 초~중학교 이후로 오랜만에 해서 새로웠던 것 같고, '데미안'에 대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니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놓치고 지나갔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되짚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며 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p>								
♣ 남경민	<p>처음 '데미안'으로 책을 선정하게 되었을 때는 읽기 어려운 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1차적으로 독서 활동을 하고, 2차적으로 팀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과 해석을 들을 수 있어서 책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p>								
<p>활동 사진</p>									

2. 2회차

일시	2025. 06. 23.(월) 20:00~22:00	장소	도서관 CIC 룸
참여자	o 임진호 김유빈 이다교 남경민		
서명 / 지은이	o 모순 / 양귀자		
토론 주제	o 내 삶속의 모순은 무엇인가?		
활동 내용	<p>■ 마음열기</p> <p>- 인사와 함께 책을 읽기전 책의 이미지와 책을 읽고난 후 생각을 공유하기</p>		

■ 작가소개 / 책소개

(작가소개)

작가 양귀자(born 1955 전북 전주)는 원광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다시 시작하는 아침』으로 등단, 이후 『귀머거리새』, 『원미동 사람들』 등 단편 문학으로 호평을 얻었으며, 1990년대부터 『모순』을 포함한 장편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책 소개)

『모순』(1998)은 25세 여성 안진진을 중심으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어머니와 부유하지만 지루한 삶을 사는 쌍둥이 이모, 술주정뱅이 아버지, 두 남자(계획형 나영규 vs 낭만형 김장우) 사이에서 겪는 갈등과 사랑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그립니다. 이 소설은 '인생의 양감(深度)'—인생의 깊이와 부피—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며, 모순적인 삶 속에서 선택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 책의 읽기전 이미지와 책을 읽고난 후 생각을 공유하기

♣ 임진호	저는 책 제목만 봤을 때, 사회의 불합리함과 같은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일 줄 알았지만, 책을 읽은 후 제 삶과 많이 가까운 이야기이고, 제가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결혼과 성공적인 삶, 행복이 모두 비례하지 않음을요.
♣ 김유빈	모순이라는 제목을 보며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지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책을 읽어보니 모두의 삶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순들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읽을수록 단순히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고민을 깊어지게 했습니다.
♣ 이다교	책을 읽기 전 다양한 모순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모순은 앞 뒤가 달라보이지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난 후 모순은 정말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섞여있어서 내가 모순인지조차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모순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책에서 묘사하는 모순들은 나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줘서 좋았습니다.
♣ 남경민	저는 처음 이 책을 고를 때는 개인의 행동에서나 삶에서 나타나는 '모순'적인 모습들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역시나 제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의 책이었지만, 오히려 예상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과 가까운 인물들의 모순적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비되는 삶을 살고 있는 엄마와 이모, 두 인물을 비교한다는 점이 특히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 내 삶속의 모순은 무엇인가?

♣ 임진호	내 삶속에서의 모순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하면 된다고 늘 말하지만 정작 나에게는 남들보다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고자 집착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모순입니다.
♣ 김유빈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가족끼리 잔소리를 주고받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지만 서로를 가장 걱정하고 누구보다 신경 쓰고 있는 것 또한 그건 모습에서 가족의 온기와 사랑을 느끼는 점이 모순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 이다교	남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할 때는 긍정적이지 못하는 것이 나의 모순인 것 같다. 난 평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는데 내가 긍정에너지가 필요할 때면 스스로를 외면해버리는 것이 나의 모순인 것 같다.
♣ 남경민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과 내면의 감정이 다르다는 것이 내 삶 속의 모순이다. 상대의 감정을 살피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 경우가 많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종종 나를 잃는 기분도 들지만 상대와의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마무리 소감

♣ 임진호	교수님의 피드백을 적용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는 것만이 아닌, 반대 의견을 생각해 봄으로써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하여 책을 읽을 때 한 가지 생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유빈	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기회가 드물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주제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 이다교	읽어보고 싶었던 책으로 다같이 토론을 나눠보니 책을 더욱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시점으로 책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어졌다. 그리고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라 늘 나누던 대화가 아닌 책에 대해 다같이 토론을 해보니 서로를 더 깊이 알게된 느낌이 들어 좋은 경험이었다.
♣ 남경민	독서토론을 통해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같은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관점과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고, 이번 경험을 통해 책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보람이 느껴진다.

활동 사진

